## 무주 이강 교육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무주교육지원청 이강 교육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의 지목을 받아 무주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게임과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강 교육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청정바다젓갈 대표, 무주군 고향사랑 1백만원 기부

14일 부안군(곰소항) 청정바다젓갈 안병관 대표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안병관 대표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2016년부터 새우젓을 납품하면서 맺게 된 무주와의 인연이 고향사랑 기부로 더욱 깊어지게 됐다"라며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무주가 발전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도 대성회 피날레… 전주, 1만6000여명 참석

요한계시록이 펼친 축제의 현장이 전북 전주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13일 목회자 250여 명을 비롯 총 1만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천지 전주 전도 대성회'를 개최했다.

이 번 집회에 온라인으로 청취한 목회자가 200명을 넘겼고, 전체 온라인 시청자 수는 11만 7000명에 달했다. 이날 대성회가 열린 신천지 전주교회에는 시작 4시간 전부터 인파들로 주변이 붐볐다. 행사 2시간 전부터는 건물은 물론 실외주차장에 마련된 좌석까지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김옥기 기자

#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 전주영생교회, 전주대에 장학금 · 발전기금 총 2000만원 기부

전주영생교회(담임목사 김동연)가 지난 13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에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으로 1,000만원과, 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4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기부 행사에는 김동연 담임목사와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전주대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장학금 및 발전기금은 故 강홍모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전주영생교회 김동연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 전주대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전주대가 기독교 대학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됐다.

박진배 총장은 "먼저 소중한 장학금과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해 준 전주영생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2021년부터 매년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을 기부해 준 은혜로, 전주대가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장학금 수혜자 선발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기 위했 심혈을 기울였다"며 "대학 발전기금은 전주대학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남원자봉센터, '제4회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14일, 남원중학교에서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남원시자원봉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알맞은 자원봉사를 찾고,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중앙로타리클럽 등 19개 기관·단체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예 체험 부스, 드론 체험 부스, 진로상담 부스 등 26개의 다양한 부스도 마련돼 학생들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해 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나눔 부스에서는 공기정화식물 심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심은 식물을 남원시노인복지관에 전달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 학생은 "자원봉사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서남상의 최종필 회장, 정읍시민장학재단에 500만원 기탁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이 정읍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재)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최종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며 "미래의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후원이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학수 시장은 "최종필 회장의 따뜻한 선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장학금은 지역의 인재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필 회장은 북면 3산업단지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2008년부터 시민장학재단에 총 58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왔다. 그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나인권 도의원,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나인권 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농산업경제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중국 3대 특장차단지 중 하나인 철령시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만호기자

## 남원 금동, 자매결연도시 경북 영천 동부동 방문

남원시 금동(동장 노환순)은 지난 12일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영천시 동부동을 방문, 특별하고 뜻깊은 난타 공연을 펼쳐 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이날 공연은 남원시 금동 자치사랑방 수강생들의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기회와 작년에 이어 영천시 동부동의 '제3회 우로지 동행 문화축제' 행사 지원 및 문화교류를 위해 마련된 특별 공연이다.

남원시 금동과 영천시 동부동은 지난 1998년 12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활발한 교류 행사와 각 지역의 행사 참여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산란계협회 김제, 독거 어르신 계란 1000판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대한산란계협회 김제지부(지부장 정용비)가 14일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계란 1,000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 김제지부에서 후원한 계란 1,000판은 김제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김제노인복지센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성암노인복지센터)에 각각 전달됐으며, 각 기관의 생활지원사들이 독거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정용비 대한산란계협회 김제지부장은 "이번 계란 기부를 통해 지역 내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일상에 따뜻함을 더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